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⑩ 한국의 선어록



▶ 한줄 요약
한국의 선어록은 진각 혜심(眞覺 慧諶, 1178~1234)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출현했다.

禪 사상·수행법·교화 전승 주요 '어록'

1. 선어록의 출현

선어록(禪語錄)은 선의 어록 또는 선종의 어록이라는 뜻이다. 기타 선전(禪典)·선적(禪籍)·선서(禪書)·선문헌(禪文獻)·선록(禪錄) 등으로 불리는데 선에 대한 일반적인 전적을 가리킨다. 선종의 역사와 사상은 바로 선어록을 통하여 설명되는데, 그것을 분류하면 선리(禪理)·사상류(思想類)·어록류(語錄類)·전등사서류(傳燈史書類)·청규류(淸規類)·공안집류(公案集類)·수필류(隨筆類)·잡류(雜類) 등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로는 선자의 어록에 한정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선과 관련된 제반의 문헌을 일컫는다.

순수 선어록의 경우는 선자의 평소 설법을 제자 혹은 제삼자가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저술과 같은 일정한 목적 내지 의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 내지 직접 법문을 듣는 제자들을 교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적어도 법문을 하는 선자 자신의 의도는 물론이고, 그밖에 선자 자신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법문을 기록한 당사자가 스승의 말씀을 오랫동안 남겨서 두고두고 가르침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많은 문중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자의 문중에 대한 홍보 내지 스승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려는 목적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간혹 제자가 기록한 것에 대하여 조사 자신이 직접 서문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생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사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다. 따라서 어록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것을 기록한 제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 내지는 보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중국의 선종에서 어록이 출현하면서 기존에 보편적으로 출현했던 위경(僞經)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것은 선종 어록의 경우 대부분이 실명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록이 위경의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도 해왔다. 당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한 선어록은 조사에 대한 권위가 높아지면서 더불어 보편화되어 갔다. 그것은 선종이라는 특수한 문화 속에서 깨침 이후의 인가(印可) 및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법의 전통과 함께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마조 도일(馬祖 道一, 709~788) 이후의 선종은 경론의 문헌적 연구를 떠나 일상의 언행에 계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다시 종래의 경론과 같은 역할을 지닌 것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오히려 종래의 경전마저도 붓다 그 사람의 어록으로까지 간주하게 되었다. 당대에는 대단히 많은 어록이 편집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후대에 어록이 새롭게 편집된 예도 많다. 이와 같이 어록이 성행한 배경으로는 선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여 문답상량이 대단히 성행한 까닭이 있었다. 당시는 수행자가 깨침을 목표삼아 각 지역의 선자들을 탐방하면서 수행을 쌓아갔기 때문에 편참(遍參)이라는 수행의 형태가 확립되어 있었다. 마조 도일 이후의 선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그대로 온전한 것으로 긍정되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확립된 선풍이 곧 조사선(祖師禪)이었다.

대체로 현존하는 당나라 시대의 선적은 대부분이 오대(五代)·송초(宋初) 무렵에 편집된 것이다. 이미 어록이라 불리는 문헌이 〈송고승전〉에서 처음 표현되어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어록이라는 문헌으로 정리된 것은 소위 기관(機關)과 게송(偈頌)의 영역을 벗어나 새롭게 그 특색이 반성되고 의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고전화(古典化)이다. 마침 〈조당집〉(952)·〈종경록〉(981)·〈송고승전〉(988)·〈경덕전등록〉(1004) 등의 편집이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던 무렵이다.

본래 어록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機關)과 이치(理致)는 단순한 기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염롱(拈弄)되고 평창(評唱)되는 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기관은 스승이 학인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제시하는 갖가지 수완 내지 방편을 말한다. 또 이치는 스승이 경론의 도리를 제시하여 제자를 교화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생생한 언어는 입으로부터 귀로 전달되는 가운데 점차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미된다.

마침 당말·오대의 동란기를 지나 전통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시작되는 송 대 초기에는 그러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당말·오대를 통하여 비교적 평온했던 강남지방에서 당대의 어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중심은 법안종(法眼宗)으로서 영명 연수(永明 延壽, 904~975)의 〈종경록〉과 도원(道原)의 〈경덕전등록〉은 모두 법안종파에 속한다. 이보다 앞선 〈조당집〉도 또한 같은 계통에서 나온 것이다. 본래 오대(五代)·십국(十國) 가운데 오월(吳越)과 남당(南唐)은 중원의 전란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당 말기 불교의 유산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그와 같은 유산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선자들에 대한 기록물이었다.

진각에 이르러 본격적 선어록 출현
중국 선종사보다 한국 선어록 적어

이리하여 송 대 초기 어록의 성립은 법안종의 연수와 도원의 업적과 병행하여 임제종의 황룡파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보림전〉으로부터 〈조당집〉·〈경덕전등록〉·〈천성광등록〉 등 소위 등사(燈史)의 계보와는 다른 새로운 선종 문헌의 성립을 의미한다. 선이 등사류의 기연에만 속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유동적인 발전의 시기에 출현하여 이후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공안집(公案集)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한국선 역사에서 최초의 선어록은 보조 지눌 이후에야 나타난다. 사진은 보조 지눌 진영.

2. 한국의 선어록

당 대 말기에는 마조 도일과 석두 희천(石頭 希遷, 700~790)의 계통에서 선풍이 크게 전개되었다. 소위 호남의 석두종에 대해서는 진금포(眞金鋪)라 하였고, 강서의 홍주종에 대해서는 잡화포(雜貨鋪)라 불렀던 것도 그 결과였다. 그들에게 선의 사상과 수행법과 교화를 전승한 주요 수단은 어록이었다. 따라서 중국선법이 한국에 전래된 일련의 인물과 시기와 성격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도 가장 보편적인 문헌으로서 선어록에 보이는 기록을 통해 가능했다. 특히 중국 선종의 전등사서에 해당하는 〈조당집〉과 〈경덕전등록〉 등에는 신라에서 유학한 승려와 중국에 정착한 승려 등에 대한 모습이 엿보인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기록은 수많은 선어록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선문답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오대 및 송 대 초기의 시대에 해당하는 신라 및 고려 전기에 출현한 한국의 선어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한국선의 역사에서 최초의 선어록은 보조 지눌(普照 知訥, 1158~1210) 이후에야 겨우 찾아볼 수 있다. 지눌에 이르러서는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진심직설(眞心直說)〉·〈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등 다종의 선문헌이 출현하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순수한 선어록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지눌의 경우는 모두가 저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어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후 진각 혜심(眞覺 慧諶, 1178~1234)에 이르러 본격적인 선어록의 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소위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으로 한국의 선종사에서 출현한 최초의 선어록이다.

한편 공안집류의 경우에도 혜심이 편찬한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30권이 한국 선종사에서 출현한 최초의 공안집에 해당한다. 이것은 공안집류로서 한국 선종사에서는 그 처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장 방대한 저술이기도 하다. 혜심에게는 기타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및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 등도 보인다. 이후로 지겸(志謙, 1145~1229)의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과 천책(天頙, 1206~?)의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과 보각 일연(普覺 一然, 1206~1289)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순수한 선어록으로 분류되는 것을 보면 〈조계진각국사어록〉을 이어서 태고 보우(太古普愚)의 〈태고화상어록(太古和尙語錄)〉·나옹 혜근(懶翁 慧勤, 1320~1376)의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尙語錄)〉·백운 경한(白雲 景閑, 1298~1374)의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錄)〉·함허 기화(涵虛 己和, 1376~1433)의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尙語錄)〉 등 5종이 여말선초에 출현하였다. 그나마 순수한 선어록으로서 특히 제명에 어록(語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경우는 조선 중기에 무경 자수(無竟 子秀, 1644~1737)의 〈무경실중어록(無竟室中語錄)〉과 조선 말기에 용성 진종(龍城 震鍾, 1864~1940)의 〈용성선사어록(龍城禪師語錄)〉이 전부이다.

중국 선종사에서 무수하게 출현한 순수어록의 경우와 달리 한국 선종사의 경우에 이처럼 어록이라는 명칭이 붙은 선어록의 출현이 드물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첫째는 선종이 크게 발전하던 고려시대에도 구산문의 경우에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그 명맥만 유지된 까닭에 중국선의 경우처럼 문중에 대한 결속력이 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의 경우마저도 문정(門庭)의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융합된 모습으로 전개되어갔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법맥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직수입된 종파와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 전기와 고려 말기에 두 차례에 걸쳐 임제종 법맥의 본격적인 수입으로 인하여 임제종풍 위주로 전개되어 있는 한국선의 경우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조선 시대에 와서는 불교세력의 약화로 인하여 공식적인 어록이라는 명칭보다는 개인의 견해를 소박하게 피력하는 사기(私記)라는 명칭을 붙여 비교적 자유롭게 기존 선문헌에 대한 주석을 붙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교적 희박했던 법맥의식에 대해서도 중국선으로부터 수입된 전등사서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으로 인하여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경우 〈경덕전등록〉을 발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선승이 한 명도 추가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던 점도 고려해볼 수가 있다. 겨우 조선 초기에 출현한 숭묵(崇默)의 〈통록촬요(通錄撮要)〉에 이르러 한국 선승의 이름이 34명 추가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옹혜근에 대한 숭배는 어떤 선문헌보다도 지대하였다는 점을 볼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